

“시민이 만든 조선대, 민립대 정체성 찾아야”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 공공성 제고 방안 공청회 “시민이 이사회 개방하고 경영 참여·견제 장치 필요”

조선대학교가 민립대학 복귀나 공영형 사립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초 민립 대학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7만여 시민의 성금으로 설립된 조선대가 민립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대학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간접 채널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른 대학과 달리 조선대는 설립의 주체가 시민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민립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영형사립대 도입의 효과성을 검증하

는 교육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실증연구단’이 최근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토론했는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16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조선대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병철·이건근 연구원은 ‘조선대학교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에 대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이후 조선대학교 이대용 부총장, 변재영 기획조정실 부실장, 양고승 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준연 총학생회장 등 대학의 주요 구성원 대표들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지병근 교수는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지닌 조선대학교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변화와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이번 실증연구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선대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조선대 공영형사립대 도입 실증연구단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는 올해 초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사업에 선정됐다. 공영형사립대는 사립대학 학교법인 이사진 과반수를 공익형 이사로 꾸리고,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 용역사업에 선정된 사립대학에 공영형사립대의 핵심요소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정책효과 확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선대 연구단은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법학 분야 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와 대학 본부의 지원과 협력 아래 학내 재정분야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 학내 구성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및 초점집단연구(FGI)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요양병원 비대면 만남의 창 동행재활요양병원(원장 류기준)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환자와 면회시간 비대면 만남의창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 환자가 가족들과 전화를 통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최혜배 기자choi@

광주 동구 이면도로 5곳 보행전용공간 시범 조성

광주시 동구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내 보행자 보행전용 공간을 조성한다.

동구는 “이면도로내 주차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오는 5월까지 5곳에 걸쳐 시범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이면도로 주차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도로에 보행자 전용 공간을 조성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지역은 학1마을 아파트 주변 2곳, 계림오거리 주변, 소태동 소천 경로당 주변, 운림동 라임2차 아파트 주변 등 5곳이다. 사업지역은 구의 자체적 점검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요청했던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온라인 개학 확대 첫 날...학생들 접속 장애 불편, 학부모 콘텐츠 부실 불만

온라인 개학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제외한 전제 초·중·고교로 확대된 가운데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접속 시스템 불안정과 콘텐츠 부실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광주와 전남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1차 개학에 이어 1주일 만에 온라인 개학이 전제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온라인 수업을 받은 학생은 초등학교 4~6학년 8만 3643명, 중학교 1~3학년 8만 7852명, 고등학교 1~3학년 9만 1673명 등 총 26만 2988명이었다.

이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오전 초등학교에서 이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학습관리시스템·LMS)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가 불안정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접속이 되지 않거나 교사가 올린 영상을 내려받아 재생하는 과정에서 접속 오류가 잦았다.

학교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위두랑은 오전에 오류가 발생해 KERIS 측에서 아예 프로그램을 닫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접속 장애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물론 학부모 사이에선 콘

텐츠 부실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원격수업이 실시간 쌍방향형이 아닌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교사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영상물을 내려받는 게 고작으로, 수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차 온라인 개학 때와 달리 이번에는 초등학교와 중·고 저학년들이 개학을 맞게 되면서 고학년들 보다 상대적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이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헤트셋을 벗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수업 중 걸려온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혼란 속에 학부모들은 “엄마가 개학하냐”는 불만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저학년 학부모와 맞벌이 부부의 고충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어머니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안심되지 않아 수시로 통화를 했다”며 “직장에 있으면서도 발·수신을 합쳐 아이들과 수업은 통화한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8 달뜨기 03:13
해질 19:07 달지름 13:45

우산 챙기세요

동해상으로 동진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기름허리교비 12/17	보성	기름허리교비 8/16
목포	기름허리교비 12/15	순천	기름허리교비 11/15
여수	기름허리교비 12/15	영광	기름허리교비 10/17
나주	기름허리교비 10/17	진도	기름허리교비 12/17
완도	기름허리교비 12/17	전주	기름허리교비 11/18
구례	기름허리교비 9/16	군산	기름허리교비 10/18
강진	기름허리교비 11/16	남원	기름허리교비 9/16
해남	기름허리교비 11/16	흑산도	허리뒤얽음 10/18
장성	기름허리교비 9/1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안바다	남동~남 1.0~3.0	서~북서	0.5~1.5
	면바다(북)	남동~남 2.0~4.0	서~북서	1.0~3.0
남해 서부	안바다	남동~남 0.5~1.5	남서~서	1.0~2.0
	면바다(서)	남동~남 2.0~3.0	남서~서	2.0~3.0
	면바다(동)	남동~남 1.0~2.5	남서~서	1.0~2.5

◇ 생활지수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00	10:25
여수 <td>16:20</td> <td>22:46</td>	16:20	22:46
	12:23	06:05
	--:--	18:10

◇ 주간 날씨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	☁	☁	☀	☀	☀	☀
9/18	10/16	9/19	9/16	5/15	5/15	5/18

청연한방병원 식약처 지정심사위 승인 획득

전국 한방병원 중 두번째

청연한방병원은 2016년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그간 50여건의 심사를 수행해 왔다.

청연한방병원은 이번 지정심사위원회 지정에 따라 의약품 연구에 필수적인 다기관 임상시험을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게 돼,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 심사를 승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이번 지정심사위원회 승인을 계기로 한약을 활용한 천연물의 R&D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북구, 장애 학생 74명에 맞춤형 학습 지원

광주시 북구가 교육 취약계층인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2020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북구는 1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5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북구에서 위탁 운영중인 5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각각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총 74명의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www.fplove.or.kr

장기68주년 광주일보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소득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